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17호 (2016-17)
발행일 2016. 06. 13.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층~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행복도 추이와 설명요인: UN 세계행복보고서를 중심으로



정해식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 UN이 지난 3월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년에 이어 올해도 행복도가 하락하였음.
- 주요 선진국의 행복도는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하락의 추세에 있지만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행복도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하는 여러 요인 중 경제수준, 사회적 지지 수준은 OECD 국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음. 우리나라는 낮은 행복도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회적 지지, 삶의 선택에서의 자유, 관대성, 부패인식에서 OECD 평균은 물론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을 보이고 있음.

1. 『세계행복보고서』 2016년(판) 발표

■ UN이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16』를 지난 3월 발표하였음.

- 2012년 전 세계적인 행복의 상태, 행복과 불행의 원인, 2013년 주관적 안녕 측정의 정책적 가치, 2015년 행복의 지역적 차이를 주요 주제로 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2017년에는 일자리와 행복, 이민과 행복에 초점을 둔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음.
 - 그러므로 2016년의 보고서는 이전 보고서의 업데이트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보고서에서는 매 3년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835점(58위/157개국)을 기록하여, 2015년도 5.984점(47위/158개국)에 비해 절대적, 상대적 수준이 하락하였음.¹⁾
- 세계행복보고서는 행복의 주관적 측정으로서 의미를 가짐.

1)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각 연도별로 응답자수를 고려한 3년 가중평균값을 보고하고 있음. 발표된 한국의 2015년 행복도는 <표 1>의 한국의 행복도에 각 연도 한국의 응답자수를 곱한 가중평균값임.

- 행복의 측정은 객관적 측정과 주관적 측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삶의 조건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 한 국가 또는 개인의 행복을 측정하며, 후자는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조사를 이용하여 행복도를 측정함. 세계행복보고서는 갤럽 world poll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OECD의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에서는 동 갤럽 world Poll의 결과를 삶의 만족도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²⁾

■ 발표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세계적인 행복도의 추이와 설명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함.

- 행복도의 추이에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차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행복도가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지역별 행복도와 변화

■ 세계 각국의 행복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을 반영하고 있음.

- 2015년 기준으로 북아메리카 및 호주, 뉴질랜드 지역이 7.251점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4.186점으로 가장 낮음.
-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5개국은 행복도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음.
 - 2015년 기준 대만(6.450점), 일본(5.880점), 한국(5.780점), 홍콩(5.458점, 2014년), 중국(5.304점)으로 나타났음.
- 북미, 호주 및 뉴질랜드 지역과 서부 유럽 지역에서는 2007년 또는 2008년을 정점으로 행복도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서부 유럽 국가의 행복도 하락이 컸음.

〈표 1〉 지역별 행복도 변화

(단위: 점, 순위, 수)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의 행복도	5.332	5.767	5.390	5.648	6.116	6.947	6.003	5.959	5.801	5.780
한국 순위	40	33	49	43	38	19	43	45	57	55
(국가) 사례 수	90	102	110	114	124	146	142	137	146	136
Western Europe	5.212	5.420	5.419	5.458	5.497	5.424	5.444	5.395	5.400	5.432
CEE & CIS	6.974	7.020	7.165	6.767	6.780	6.784	6.826	6.755	6.730	6.762
South Asia	5.018	5.046	5.204	5.130	5.074	5.200	5.321	5.343	5.409	5.405
East Asia	5.041	5.218	4.945	5.009	5.105	5.037	4.869	4.933	5.082	5.099
LAC	5.398	5.623	5.366	5.336	5.739	6.006	5.735	5.875	5.748	5.853
MENA	5.629	5.846	5.798	6.367	6.180	6.068	6.099	6.159	6.105	5.941
SSA	5.932	5.443	5.184	5.644	5.570	5.469	5.266	5.214	5.455	5.251
N.A. & ANZ	4.074	4.404	4.285	4.361	4.205	4.445	4.300	4.022	4.074	4.186
세계평균	7.243	7.471	7.350	7.323	7.372	7.284	7.222	7.372	7.262	7.251

주 1) 연도별로 측정된 행복도의 원 자료임.

2) CEE & CIS, 중동부 유럽 및 독립국가 연합, LAC-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 MENA-중동과 북아프리카, SSA-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N.A. & ANZ-북아메리카 및 호주, 뉴질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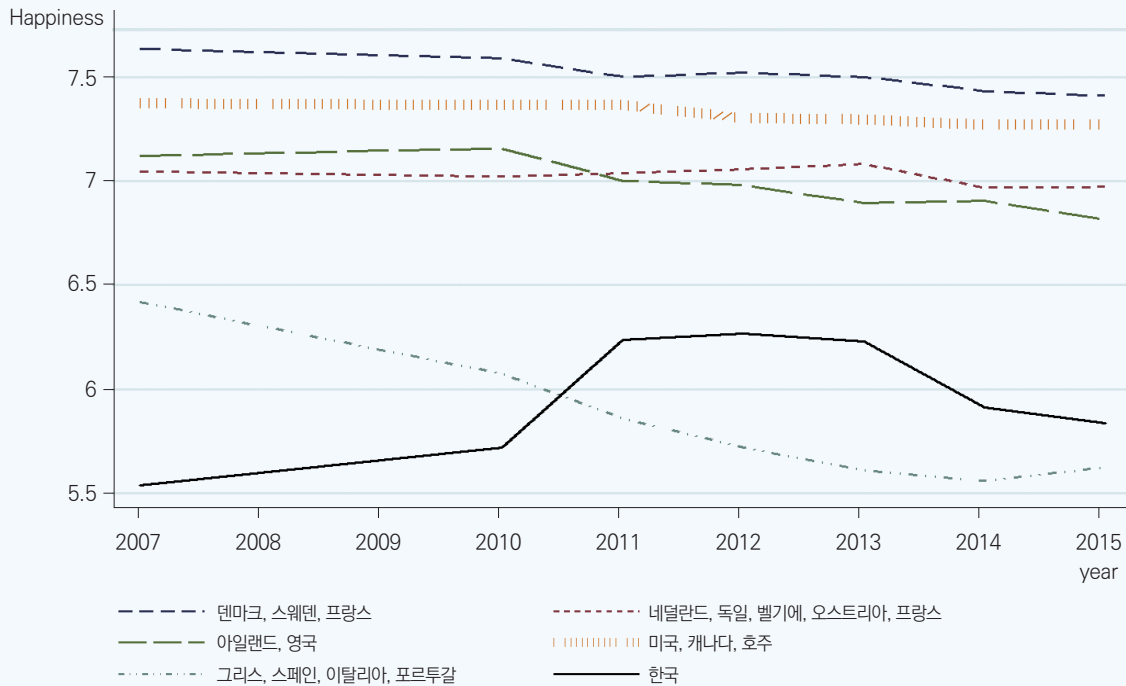
자료: World Happiness Report, Online-data-for Chapter 2를 이용하여 계산함.

2) OECD의 Better Life Index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식·김성아. (2015).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보건복지포럼, 2015.9, 75-88.'을 참고할 수 있음.

■ 분석 대상을 선진 복지국가로 좁힐 경우³⁾, 행복도는 2007년~2015년 기간 중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2007년 6.984점에서 2015년 6.715점).

- 그리스 등 남유럽 4개국은 2007년 6.419점에서 2015년에는 5.623점으로 크게 하락함.
- 네덜란드 등 유럽 대륙의 5개국은 7.046점에서 6.972점으로 하락하여 그 폭이 적었으며, 미국·캐나다·호주는 7.373점에서 7.273점으로, 덴마크·스웨덴·핀란드의 3개국은 7.636점에서 7.410점으로, 아일랜드와 영국은 7.121점에서 6.816점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1] 주요 국가의 행복도 변화



주 1) 행복도 조사의 초기 시점에서 국가별 결측을 반영하기 위해, 2005~2007년 평균을 2007년으로, 2008~2010년 평균을 2010년으로 표시하였으며, 그 외 년도는 이전 3년의 평균값임.
 2) 각국의 행복도는 연도별 응답자수를 반영한 가중평균치이며, 지역별 평균은 해당 국가 행복도의 산술평균값임.
 자료: World Happiness Report, 'Online-data-for Chapter 2' 및 '부록, 연도별 응답자 수'를 이용하여 계산함.

3. 각국의 행복도 차이의 설명요인

■ OECD 회원국 내에서는 경제력 수준과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행복도의 유의한 설명요인이 아니었으며, 관대성과 부패인식의 설명력이 확연하게 높아짐.

- 『세계행복보고서』는 각국의 행복도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을 도출하여 영향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국가를 분석 대상으로 할 때 위 두 가지 요인(경제력 수준, 사회적 지지의 정도)도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음.
- 그러므로 일정 경제수준 이상의 경제적 발전을 이룬 국가를 놓고 보면, 국가간 행복도 차이에서 경제적 성취의 설명력은 낮아지고, 대신에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음.

3) OECD 국가 중 기간 중 결측치가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표 2〉 국가 행복수준의 설명요인-OECD 국가와의 비교(Pooled OLS, year fixed effect)

	전체 국가	OECD 국가	OECD 국가 (2009~)
1인당GDP(log)	0.338***	0.100	0.022
사회적 지지 ¹⁾	2.334***	0.488	-0.169
출생시 건강기대수명	0.029***	0.057***	0.063***
자유로운 삶의 선택 ¹⁾	1.056***	1.097***	1.041***
관대성 ²⁾	0.820***	1.343***	1.612***
부패인식 ³⁾	-0.579**	-1.183***	-1.172***
국가사례수(년간 최대)	156(134)	34(32)	34(32)
분석사례수	1,118	272	212
Adj. R2	.738	.718	.723

주 1) 갤럽 월드폴에서 '사회적 지지'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자유로운 삶의 선택'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만족의 여부를 묻고, 각각 국가 평균값을 활용함.
 2) 관대성은 지난 달 기부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가 평균을 도출하고, 평균값이 1인당 GDP로 설명되지 않은 잔량을 이용하여 측정함.
 3) 갤럽 월드폴에서 정부 영역, 기업 영역에서의 부패의 만연 여부에 대한 각 질문의 평균값임.
 4) ***, **, *은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자료: 앞과 동일.

■ 한국은 행복도의 설명 요인 중 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수준과 같은 주관적 인식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설명요인의 경향성은 남유럽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사회적 지지, 자유로운 삶의 선택에서 낮은 값을 보였음.

〈표 3〉 행복 설명요인의 차이

	1인당 GDP(log)	사회적 지지	건강기대수명	삶의 선택	관대성	부패인식
OECD 평균	10.436	0.905	70.395	0.799	0.041	0.648
한국	10.368	0.788	73.148	0.637	-0.063	0.817
남유럽	10.301	0.878	71.623	0.651	-0.137	0.909
세계 평균	9.220	0.810	62.313	0.723	-0.005	0.753

주: 2009년부터 2015년의 평균값임.

자료: 앞과 동일.

■ 우리나라가 특히 낮은 수치를 보이는 설명요인은 주관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객관적인 설명요인(1인당 GDP, 건강기대수명)이 양호해졌음에도, 국민의 삶에서 여유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결과는 국민 삶의 질 제고에서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행복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을 시사함.

집필자 정해식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2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ation/periodical/focus/list.jsp>

